

언어구분 KOR

논문구분 원저/구연

논문분야 족부족관절

논문제목 족근관 증후군에서 신경 전도 검사의 효용성

영문제목 **The efficacy of NCV on Tarsal tunnel syndrome**

발 표 자 오원석

책임저자 박흥기

저 자 이경찬, 오원석, 박지훈, 박흥기

기 관 명 가천대 길병원

서론 : 족근관 증후군은 경골 신경 및 그 분지의 포착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, 수술 후의 결과가 50~90%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. 족근관 증후군의 표준 진단 검사로 신경 전도 검사를 들 수 있는데, 신경 전도 검사와 수술 후 예후와의 관련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족근관 증후군은 경골 신경 및 그 분지의 포착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, 수술 후의 결과가 50~90%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. 족근관 증후군의 표준 진단 검사로 신경 전도 검사를 들 수 있는데, 신경 전도 검사와 수술 후 예후와의 관련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수술 전 시행한 신경 전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인 환자는 19명(68%), 음성 소견은 9명(32%)이었으며, 수술 전 양성으로 나온 환자 중에서 수술 후 검사상 양성을 보인 환자는 3명(16%), 호전 소견은 8명(42%), 음성 소견은 8명(42%)이었다. VAS 척도는 수술 전 평균 7.3점(7~9점)에서 4.2점(0-9점)으로 감소하였다($p=0$).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4명(14%), 만족이 17명(61%), 보통이 5명(18%), 불만족이 2명(7%)이었다. 수술 전 신경 전도 검사상 양성이었던 환자 19명의 수술 후 평균 VAS score는 4.64점,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3명(15%), 만족이 12명(65%), 보통이 3명(15%), 불만족이 1명(5%)이었다. 수술 전 신경 전도 검사상 음성이었던 8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평균 VAS score는 3점,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명(12%), 만족이 5명(61%), 보통이 2명(25%), 불만족이 1명(12%)이었다. 수술 후 신경 전도 검사상 양성이었던 환자 3명의 수술 후 평균 VAS score는 4점,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명(33%), 만족이 2명(66%)이었다. 수술 후 신경 전도 검사상 음성이었던 17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평균 VAS score는 3.9점,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명(10%), 만족이 11명(58%), 보통이 2명(10%), 불만족이 2명(10%)이었다. 수술 전 신경 전도 결과와 수술 후 pain VAS 척도($p=0.647$) 및 환자 만족도($p=1$)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, 수술 후 신경 전도 결과와 수술 후 VAS score척도($p=0.374$) 및 환자 만족도($p=1$)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었다.

결론 : 족근관 증후군의 진단 시 이용되는 신경 전도 검사는 수술 후 치료 결과와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족근관 증후군, 신경 전도 검사